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방침에 따라 6월 마지막 주까지 점심, 그리고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가집니다.
3. 6월 월삭새벽기도회는 내일(6/1)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새로운 달 6월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6/6) 청소담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중열 장로)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교회서 가지는 점심 식사는 미리 공지한 대로 없습니다.
6. 6월 28일(주일) 낮예배 시간에 '전반기 세례식'을 가집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31일	6월 7일	6월 14일	6월 21일
예배기도(오전)		오진석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주일식사담당		로템 목장 (정진숙 권사)	호산나 목장 (강숙여 권사)	아가페 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 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2020년도 전반기 세례식과 세례자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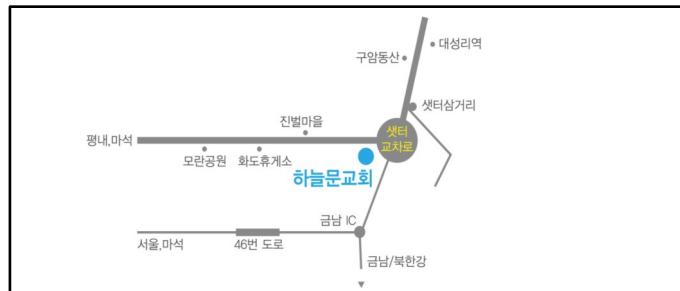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85번(요일 4:7-11) 다같이
*경배찬송	20장(4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2장(통 408장) 다같이
대표기도	오진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빌 3:10-1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꽃대를 향하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4:1-8 '믿음의 의'(1)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11)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푸른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의 끝자락이다. 교회 건너편 자전거 도로에서 질주하던 이들의 환호소리가 이곳 목양실까지 들려온다. 그 소리에 이끌려 오전 내내 읽던 책을 던져두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렇다고 누가 반겨줄 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먼 산만 뚫어지게 쳐다보다 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다. 교회 앞마당에는 어디서 날아와 꽃을 피웠는지 노란색 민들레가 눈에 들어온다. 마당으로 나가 풀밭에 쏙그려 앉았다.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민들레를 가만히 응시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만 같다. 그 비밀이란 수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민들레의 정교한 구조다. 오른편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민들레꽃 세 송이가 나를 태초의 세계로 인도한다. “아하! 네가 그렇게 생겼구나!” 사람이 보기에 신기할 따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 자연은 언제나 인위적인 묵상보다도 훨씬 감동적인 인생의 깨달음을 선사한다. 다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깨달음을 놓치며 산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임무를 그저 묵묵하게 행하는 자연은 자신을 남들과 결코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해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저 하늘을 질주하는 이름 모를 새나,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보다 위대하다고 감탄했다. 창조의 본능에 따라 자연의 식물들과 동물들은 가장 간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인간만이 자신의 삶에 예술가나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과의 경쟁에 내몰려 타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 허송세월한다. 그러니 불평과 탄식만 터져 나온다.

오늘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저 민들레 홀씨처럼, 씨방을 탈출해 치고 올라갈 것인가? 모름지기 성도란 낯선 길을 걷는 여행자가 이정표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를 찾아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 삼아 걸어가야 한다. 오늘도 지난 석 달간 그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확인하거나, 그도 아니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TV나 보거나,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에 멍청하게 보기를 반복하며 살 것인가? 점심을 먹고 눈을 돌려 다시 교회마당을 보니, 오전에 보았던 민들레 하얀 관모 씨들이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신나는 미래를 위해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화된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